2017 Diplomatic White Paper

Chapter 7

효과적인 선진외교 수행 체제 구축

제1절 선진외교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외교 역량 강화 200

제2절 교육 및 평가제도 개선 203

제 1 절

선진외교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외교 역량 강화

1 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2016년 한 해 영사 및 홍보 분야 전문직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고용휴직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다수의 외무공무원들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토록 장려하는 등 외교부의 글로벌 전문성 강화에도 주력하였다.

2 능력 중심 인사 운영 및 가정친화적 업무 환경 조성

2016년에는 주세네갈 대사 등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보임하였고, 실장급 간부로서는 최초로 여성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최근 여성 직원 채용 비율이 크게 상승(2016년 5급, 7급 공채 여성 합격자 비율은 각각 67%, 66%)하였다.

외교부는 가정친화적 업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2016년 10월 '일 · 가정양립 고충 심의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일 · 가정양립 고충 심의위원회'는 함께 설치된 '고충접수 전용창구'와 함께 직원들의 진솔한 고충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발굴, 시행하였다.

3 개방형 직위 및 인사교류 확대를 통한 열린 공직사회 구현

외교부는 정책기획관, 부대변인 등 본부 주요 간부 직위와 주미국 경제공사, 주일본 경제공사, 주제네바 차석대사, 주OECD 공사, 주로스앤젤레스 부총영사 등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화교류협력과장, 녹색환경외교과장 등 본부 과장급 직위도 개방형 직위로 운영 중이다.

4 외교 수요에 부응한 조직 · 인력 확충

외교부는 2016년에 공공외교 강화, 주한미군 관련 사건 · 사고 대응,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공관 행정직원 관리 등을 위한 본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였다. 또한 재외국민 안전 및 인권외교 강화를 위해 2개 재외공관 및 분관의 인력을 보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책 중심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공공외교업무를 총괄해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기존 평가담당대사를 공공외교대사로 전환하고 정책기획관 산하에 한시 조직으로 정책공공외교담당관 및 지역공공외교담당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재외국민 안전 확충을 위해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분관을 개설하였다.

제 2 절

교육 및 평가제도 개선

1 외교 인력 역량 강화

국립외교원은 외교관후보자를 대상으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을 2015년 12월 15일~2016년 11월 25일 동안 '공직소명의식', '전문지식', '외교역량', '외국어' 4개 분야 40여 개 과목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다년의 외교경험과 학식을 갖춘 국내외 학자 및 저명인사들의 특강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외교환경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외교관 후보자 및 외무영사직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어집중과정을 비롯하여, 공관 부임 전 특수외국어교육, 사이버과정 등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여 우리 외교관들이 외국어와 콘텐츠 양 측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립외교원은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정부 · 공공기관 국

장급 간부 대상), 국제협상 및 회의 과정(정부 · 공공기관 국제 업무 담당자 대상)을 통해 공공부문의 국제 업무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외교관 연수 과정, 주한외교관 한국소개 프로그램 등의 대외교육을 실시하여 외국 외교관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외교안보 연구 활동 강화

2016년 외교안보연구소는 주요 사업으로 세계 석학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IFANS 국제문제회의」를 비롯해 「제4차 아시아 싱크탱크 서밋」, 「2016 서울국제법아카데미」 등을 개최하여 연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외 학술교류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국정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중견국 외교', '한 · 미 동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연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제3차 한 · EU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외교안보연구소는 국내외 전문가, 학계, 정부인사가 참여하는 세미나, 정책 협의회, 학술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여 외교현안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관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연구학술 결과물로 「국제정세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정책연구과제」, 「IFANS FOCUS」 등을 발간하였다.

2016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 국제학술회의

학술회의	일시 및 장소	관련 기관 등
한 · 미 · 중 3자 대화	미국 워싱턴 (4.18~19)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중국 국제문제연구소(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제25차 한 · 중 학술회의	국립외교원 (5.10)	중국 국제문제연구소(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제3차 한 · 일 · 인 3자 회의	국립외교원 (6.7)	일본 도쿄재단(The Tokyo Foundation) 인도 국방연구소(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제4차 아시아싱크탱크 서밋	국립외교원 (6.8~10)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 · 이스라엘 라운드테이블	국립외교원 (6.29)	이스라엘 외교부 정책연구센터(Center for Policy Research)
제5차 중국연구센터 · 중공 중앙당교 전략대화	국립외교원 (7.12)	중공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한 · 이란 워크숍	이란 테헤란 (8.23)	이란 외교부 정치국제문제연구소 (Institute for Political and International Studies)
제3차 한 · EU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세미나	국립외교원 (9.12)	유럽연합안보연구원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제3차 한 · V4 세미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10.13)	헝가리 외교통상연구원(Institute for Foreign Affairs and Trade)
제9차 IFANS · RIPS 전략대화	국립외교원 (10.25)	일본 평화안전보장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2016 IFANS 국제문제회의	국립외교원 (10.26)	–
제8차 한 · 중 · 러 학술회의	국립외교원 (11.8)	중국 국제문제연구소(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
제9차 한 · 중 · 일 협력포럼	일본 도쿄 (11.10)	중국 국제문제연구소(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일본 국제문제연구소(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제31차 한 · 일 학술회의	일본 도쿄 (11.11)	일본 국제문제연구소(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IFANS · MGIMO 회의	러시아 모스크바 (11.23)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

한편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IFANS Talks(외교 이슈 강연회) 총 4회(3.11/7.1/9.23/11.25), IFANS Debate(외교 이슈 공개토론회) 1회(8.5), KNDA Lecture 시리즈(저명인사 초청 강연회) 총5회(6.14/9.2/10.14/11.18/12.15)를 통해 외교 정책이나 국제 이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3 공관장 성과평가를 통한 외교 역량 강화 노력

2016년에는 정무, 경제, 영사, 공공외교 등 '7개 업무분야'와 각 공관장이 주재국의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사업목표를 세우고 주도적으로 이행하는 '공관장 중점추진사업' 등 기존 평가항목에, '3대 외교전략 핵심과제'를 신설 · 추가하여 본부 외교전략 목표와 공관 외교활동의 조화 및 일치성을 한층 도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외교활동의 전반적 성과를 향상시키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